# 절에서 젓갈 얻어먹는 눈치의 삶

## (시편 92:1~15)

1-3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풂이 좋으니이다
4.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5.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6.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절에서 젓갈 얻어먹는 눈치의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절에서 젓갈 얻어먹는 눈치의 삶'
"눈치가 빠르면 절간에 가서도 젓갈을 얻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된 표현 중에 "알아서 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부가 내리기 전에 눈치로 얻어낸 나름대로의 결론을 실천에 옮기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해에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알아서 기는 삶을 완전히 멈추자는 것입니다. 다른 목표를 가질 필요가 없이 어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름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 보지 않는 것입니다.
속담에서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은 절간 같은 곳입니다. 절간에는 고기나 생선이 있을 수가 없고 젓갈류도 없습니다. 출가한 수행자들의 거처에는 채식만이 불교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자가 젓갈이 먹고 싶어서 김치에 몰래 젓갈을 넣어서 담갔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스님이 맛을 보고는 왜 젓갈을 넣었냐며 따지는데 그 속내는 젓갈을 좀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크기의 마음의 공백을 만드셨기 때문에, 항상 만족거리 기쁨거리를 흡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이 세상은 절간입니다. 절간에 젓갈이나 고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이 마음을 채워야 하는 진정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등장을 해서 마치 절간에서 젓갈을 찾듯이, 이 세상에서도 기쁨거리와 만족거

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젓갈을 내밀듯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을 기쁨과 만족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둔갑시켜 내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간에 규정상 고기가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기쁨과 만족이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로 기뻐하도록 만드신 존재가 인간입니다. 동물들은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먹이를 얻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땅에서 얻을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굳이 하늘까지 가지 않더라도 육체로 접하는 것들에서 얼마든지 기쁨거리와 만족거리가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상에는 이러한 신념체계와 가치체계가 확고하게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얻기 위해 이 세상 눈치를 봐야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눈치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눈치 보지 않는 삶을 위해서 시편 91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두 이름과 연관하여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절간에서 젓갈을 얻어먹듯이 세상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얻으려고 눈치 보는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즉 눈치 보는 일을 죽이는 것입니다.
1절에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라고 하면서 지존자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와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두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의 ‘하나님이름 사용설명서’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91편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마음이 하늘에 가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지성소를 뜻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지존자 하나님에게로 가서 만족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1절의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라고 하고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

다'라고 합니다. 즉 지존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이 땅에 대해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높이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안식일에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먼저 지존자와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두 이름을 사용하는 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의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결국 전능자 하나님이 땅에서 역사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인데, 이 걸리는 부분에서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아주신 것으로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오늘 4절의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행보를 살펴보면 권능을 행하심으로 인해 기뻐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 또한 사역의 과정 중에 일어난 기적들을 보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괴로움 속에서 기뻐하며 찬양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지 기적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기쁨은 항상 기적보다 먼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기적은 기쁨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시가 "안식일의 노래"라는 표제어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표면적으로 이 세상에서 진행되던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은 곧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지존자이심을 인정하는 규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최고의 가치이신 지존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세상일을 멈춤에 있습니다. '이 세상일을 한다.'라는 마음의 바탕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람이 이루어지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 지점은 곧 기쁨과 만족입니다. 결국 살아서 숨 쉬며 하는 모든 행동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존자 즉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를 찾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실제로 목숨을 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변의 이방 사람들은 여전히 필사적으로 일하며 전진해나갑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홀로 하나님을 지존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기 위해 세상일을 멈추자 마음이 위태롭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시던 일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셨답니다. 한 마디로 시간당 급여를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교포들이 시간당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주변에 미안해서 눈치가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삶의 태도가 이래도 되는가에 대해 눈치가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세상에 주던 마음을 중단합니다. 곧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이래도 되는가에 대해 눈치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바치고 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존자를 영어성경에서 찾아보면 'Most High'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 분께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랫것들에 불과합니다. 나를 대통령이나 교황님과 비교해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현실에서 높은 사람들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즉 이 세상의 가치체계와 신념체계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 세상에 대해서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데 아랫것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겠다고 초청을 하는데, 정작 그 초청장을 받아든 우리는 이 땅의 아랫것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절간에서 젓갈을 찾듯이 있지도 않은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느라 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눈치 보는 삶을 중단해야 합니다. 낙오될까 뒤쳐질까 실패할까 창피당할까 평생을 눈치만 보며 지냅니다. 이 세상의 눈치 보는 삶이 아예 굳어져서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눈치 보며 알아서 기는 삶은 지금까지로 충분합니다. 올해가 황금 개띠 해라고 하는데 한 번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살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악인들은 풀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에 대한 언급입니다.

절간에서 눈치 보며 젓갈을 찾듯이 세상에서 눈치 보며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으려는 이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살인 간음 거짓말 등은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아내려는 악함의 증상이고 열매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악은 바로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존자 하나님께서는 하늘까지 통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인데 이 초청장을 거절하고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으려고 헤매고 다닙니다.

오히려 이 체질이 되어버린 악을 중단하려 할 때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목숨 걸고 달려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말지 확신이 없는데, 정말로 세상에 대해 죽어도 될까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지 말라고 안식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풂이 좋으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려야 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풂이 좋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식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이 들어 아침에 깨어납니다. 시인은 잠자는 것을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절간에서 눈치로 젓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눈치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자는 때에는 눈치를 볼 수 없습니다. 눈치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풂이 좋으니이다’라는 말은 눈치가 잠든 동안에 하나님이 성실히 움직이시며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신 결과로 삶이 다시 시작되는 아침에는 에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처음 눈을 떴을 때 보았던 곳이 에덴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안식을 잠드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서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안식이 있어야 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매순간마다 안식이 지켜져야 합니다. 안식함에 있어서 세상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 나왔던 4절의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라는 말씀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 20절의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을 병행해서 생각해보면 명확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만 세상에 대해서 죽고 마음의 기쁨을 하늘로 추구함에 있어서(세상일을 등짐에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실지에 대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내심 세상의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될까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듯이 안식을 누리기를 반복하면서 지존자를 찾기에 집중하자, 염려했던 세상의 문제들이 평강 가운데 진행됨을 깨닫습니다. 내가 깨어서 활동하며 세상의 눈치를 살필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눈치 보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가난한 고시생과 그를 사랑으로 뒷바라지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국 고시에 합격하자 기쁨을 누립니다. 여인의 기쁨은 고시합격이 아니라 사랑하던 사람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부잣집에서 사윗감을 모집할 때에 조건으로 고시합격을 내걸었습니다. 이때에 부잣집에서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사람이 아닌 고시합격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을 안식일과 연관 지으며 기쁨을 얻게 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곧 세상에 대해 바라는 바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은 곧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가져도 잃어도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으려는 것은 절간에서 눈치 보며 젓갈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의 눈치 보는 삶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기쁨과 만족을 향해 가는 악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을 향해 바라는 마음가짐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절간에서 젓갈을 찾듯이 세상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으려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지존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찾기를 마음 놓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분께서 나를 초대하셨는데 더 이상 아랫것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도 돈도 대통령도 다 아랫것들에 불과합니다. 마음 놓고 주저함 없이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을 하늘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안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눈치가 죽게 하시고 세상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으려는 마음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존자 하나님으로만 영생하는 만족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은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